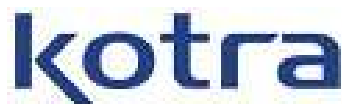


키르기즈스탄

정보수정일자: 2012. 09. 30

작성처: 알마티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5
3. 한국과의 주요이슈.....	6
4. 경제동향 및 전망.....	10
5. 주요 산업 동향.....	14
6. 수출입동향	20
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6
8. 외국기업 투자동향.....	28
9. 우리기업 투자동향.....	33
10. 시장 특성.....	37
11. 바이어 발굴.....	38
12.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39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키르기즈 공화국은 1998년 12월 CIS 국가 중 최초로 WTO 에 가입하는 등 소비에트 붕괴 이후 최초로 서구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키예프 前대통령의 장기 집권, 부정부패, 소규모 인구,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대적 자원 빈곤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립 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및 토지개혁으로 경제적으로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러시아 모라토리엄과 금 생산량 저조로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되었다.

2003년 이 후 전력발전 시설이 정비되고 농업 및 IT 산업, 도로건설 등이 해외 원조를 통해 육성되면서 7%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05년 대 정부 대중 소요사태(튤립혁명)와 국제 상품가격 상승, 금 생산 저조로 경제적 혼란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2005년 키르기즈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경제산업통상부에서 재무부로 국가경제정책을 위임하면서 이민취업위원회 등 신규 경제기구를 설립한다. 더불어 파리클럽회의에 대외 채무(1억2400만달러)의 탕감과 만기 연장 요청을 한다.

2006년 3월, 키르기즈 정부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지위를 신청하였는데 동 조치에 따라 대외 채무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외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정치불안은 키르기즈 투자환경에 절대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 Kurmanbek Bakyiev 정권이 외자유치 (러시아의 10억 원조, 마나스 공항 미국 임대계약연장)로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09년 7월, Kurmanbek Bakyiev 는 압도적인 투표수로 재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2010년 4월 키르기즈는 물가불안정, 편중된 지역 정책, 소수민족간 갈등으로 민중 소요사태가 일어났으며 바키예프 대통령은 강제 하야되었고 Roza Otunbayeva 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뤄졌고 12월 3개당(Social Democratic Party, Respublica, Ata-Jurt)이 연합되면서 신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당수와 당원들의 지역 감정과 정치적 권력 갈등으로 장기적인 연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2011년 10월 30일에 대선이 치뤄졌으며, Almazbek Atambaye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2년 1월에 공식 취임하였으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 명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
위 치	아시아 대륙 중부
면 적	199,951 km ² (대한민국: 99,720 km ²)
기 후	○ 대륙성 기후 - 1월 평균기온: -4℃ - 7월 평균기온: 25 ~ 27℃ - 평균 강수량: 약 400mm
수 도	비쉬켈: 84.9만명
인 구	5,496,737 (2012 년 6 월 기준)
주요도시	○ 7개 지역자치구 - Chui, Issyk-Kul, Osh, Batken, Talas, Jalal-Abad, Naryn ○ 2개 중심도시: Bishkek City, Osh City
인 종	키르기즈 71.7%, 우즈벡 14.3%, 러시아인 7.2%, 고려인 0.3%, 기타 6.5% (2011 년 기준)
언 어	키르기즈어(주), 러시아어(공식, 2001)
종 교	이슬람교 75%, 러시아정교 20%, 기타 5%
독립일	1991 년 8 월 31 일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국가원수	Almazbek Atambayev
입법부	○ 의원내각제 ○ 최근 선거일: 2010년 10월 10일
가입현황	ADB, CIS, EAEC, EAPC, EBRD, ECO, FAO, GCTU, IAEA, IBRD, ICAO, ICCT, ICRM, IDA, IDB, IFAD, IFRCS, ILO, IMF, Interpol, IOC, IOM, IPU, ISO, ITSO, ITU, MIGA, NAM, OIC, OPCW, OSCE, PCA, PFP, SCO, UN, UNCTAD, UNESCO, UNIDO, UNMEE, UNMIS, UNWTO, UPU, WCO, WFTU, WHO, WIPO, WMO, WTO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 EIU

나. 경제지표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 (만명)		525	529	534	542	548
GDP	총액 (억 솜)	1,419	1,880	1,964	2,204	2,750
	(억 불)	38	51	46	48	59
	성장률(%)	8.5	7.6	2.9	-1.4	5.7
	1 인당 GDP (달러)	715	940	845	810	861
산업생산 성장률(%)		7.3	14.9	-6.4	0.5	5.0
월평균임금 (USD)		106	148	141	148	N/A
인플레이션 (%)		10.2	24.5	6.8	8.0	5.7
평균환율(솜/USD)		37.32	26.57	42.90	45.97	46.14
대출금리 (% , 연말기준)		25.3	19.9	21.7	29.4	34.1
무역 (백만불)	교역량	3,973	5,601	4,514	4,760	6,225
	수출	1,337	1,847	1,700	1,779	2,278
	수입	2,636	3,754	2,814	2,981	3,947
	무역수지	-1,299	-1,907	-1,114	-1,202	-1,669
총외채 (억불)		32	35	25	24	N/A
외국인직접투자 (억불)		4.4	8.6	5.5	2.6	8.4
경상수지(백만불)		-263	-680	-300	-467	-177
실업률 (총인구 대비, %)		11.5	11.1	11.2	8.4	8.6
외환보유고 (백만불, 금 제외)		1,107	1,153	1,494	1,604	1,703

자료: 키르키즈 통계청, 키르키즈 중앙은행, EIU

다. 대한민국-키르기즈스탄 관계

체결 협정	○ 한.키르기즈 EDCF차관 공여 협정(97.6) ○ 한.키르기즈 SOFA 협정(2002.4.30 발효) ○ 한.키르기즈 관광협정(2006.7 서명) ○ 한.키르기즈 항공협정(2007.6 발효) ○ 한.키르기즈 투자보장협정(2007.11 서명) ○ 한.키르기즈 투자보장협정(2008.7 발효) ○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가서명) ※ 1 차 실무회담(2008.5, 비쉬켈), 2 차 실무회담(2008.11, 서울) ○ 한.키르기즈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2009.10 가서명) ○ 한.키르기즈 법무부협력에 관한 협정(MOU)(2012.08)
한-키 교역 규모	○ 2012년(상반기) 기준 (USD) - 교역량: 81,847,769 달러 - 수출: 81,816,800 달러(증가율: 22.7%) - 수입: 30,969 달러(증가율: -97.9%) - 무역수지: 81,785,831 달러
교역품	○ 수출 (대 키르기즈스탄) - 편직물, 승용차,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폴리에스터직물 등 ○ 수입 - 식물성한약재, 스위치 등
투자 교류	○ 우리나라와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규모 (USD) - 1998년: 2건, 5,800,000 달러 - 1999년: 3건, 2,650,000 달러 - 2000년: 1건, 350,000 달러 - 2001년: 1건, 180,000 달러 - 2002년: 1건, 40,000 달러 - 2005년: 2건, 355,000 달러 - 2006년: 6건, 732,000 달러 - 2007년: 28건, 12,824,000 달러 - 2008년: 50건, 33,038,000 달러 - 2009년: 16건, 8,534,000 달러 - 2010년: 44건, 12,220,000 달러 - 2011년: 18건, 2,930,000 달러 - 2012년(상반기): 13건, 717,000 달러 - 투자누계금액: 187건, 80,516,000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교 민	총 교민 수 약 160명(2010년 기준)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KITA, 주 키르기즈 한국대사관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사회 동향

키르기즈 공화국은 1998년 12월 CIS 국가 중 최초로 WTO 에 가입하는 등 소비에트 붕괴 이후 최초로 서구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카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부정부패, 소규모 인구,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대적 자원 빈곤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립 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및 토지개혁으로 경제적으로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러시아 모라토리엄과 금 생산량 저조로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되었다.

2003년 이 후 전력발전 시설이 정비되고 농업 및 IT 산업, 도로건설 등이 해외 원조를 통해 육성되면서 7%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05년 대 정부 대중 소요사태(튠립혁명)와 국제 상품가격 상승, 금 생산 저조로 경제적 혼란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2005년 키르기즈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경제산업통상부에서 재무부로 국가경제정책을 위임하면서 이민취업위원회 등 신규 경제기구를 설립한다. 더불어 파리클럽회의에 대외 채무(1억 2,400만달러)의 탕감과 만기 연장 요청을 한다.

2006년 3월, 키르기즈 정부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지위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조치에 따라 대외 채무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외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정치불안은 키르기즈 투자환경에 절대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 Kurmanbek Bakyiev 정권이 외자유치 (러시아의 10억 원조, 마나스 공항 미국 임대계약연장)로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09년 7월, Kurmanbek Bakyiev 는 압도적인 투표수로 재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2010년 4월 키르기즈는 물가불안정, 편중된 지역 정책, 소수민족간 갈등으로 민중 소요사태가 일어났으며 바키예프 대통령은 강제 하야되었고 Roza Otunbayeva 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뤄졌고 12월 3개당(Social Democratic Party, Respublica, Ata-Jurt)이 연합되면서 신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당수와 당원들의 지역 감정과 정치적 권력 갈등으로 장기적인 연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대통령 선거는 2011년 12월에 열렸으며 Almazbek Atambayev가 당선하여 평화로운 권력 이동이 이루어졌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관

1992년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후,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관할지였으며 2008년 10월에 대한민국대사관이 첫 개설되었다. 양국간의 무역규모는 2008년 기준 1억 6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한국-카자흐스탄 교역규모보다는 약 5배 가량 적은 규모이나 연간 4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경제규모의 1/17(GDP 기준)에 지나지 않는 키르기즈 공화국은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위성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으로, 타 유럽국가들과 같이 한국은 유무상 원조가 양국간의 주요 이슈라 할 수 있다. 2006년~2008년간 대 키르기즈 한국 무상지원은 약 1백3만 달러가 가량이 지원되었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연수생 교육, 물자지원, NGO 지원, 봉사단 파견 등이다.

한편, 1999년 EDCF가 TDX-10 교환기 교체 사업으로 지원(약 1200만 달러)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조건은 연 2%의 이자율과 10년거치 30년 상환이었으나 2005년 키르기즈 전체 대외채무 일부 탕감문제가 파리클럽회의를 거쳐 승인된 이후 한국측에도 2차례 거쳐 탕감을 요청한 바 있다. 2006년 채무조정에 따라 기존 채무의 25% 감면 수혜를 받은 셈이다.

한편, 2007년 양국간의 협약 중 노동분야협력이 이루어졌는데, 동 협력사항은 연 2,500명의 고용허가 쿼터제(한국측)를 실시하고 2008년 이후부터는 5000명까지 확대하였다.

대 키르기즈 공화국 한국투자분야는 주로 광업, 건설업, 부동산업으로 2007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의 건설 붐 기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06년부터 본격화된 대 카자흐스탄 건설업 한국진출보다는 다소 시차를 보이는데 이는 키르기즈 공화국이 카자흐스탄 경제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연차적 결과라 할 수 있다.

2012년 4월 한-키르기즈 직항노선이 4.29에 공식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키르기즈와의 인적, 물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4월 주마르트 경제담당 부총리가 방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국-키르기즈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대한 문안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6월 15일에 키르기즈 의회는 한국 포함 42개국 국민에 대하여 60일간 비자를 면제하는 법령을 승인하였다.

나. 외교관계

일시	내용
1991.12.30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승인
1992.01.31	외교관계 수립
1993.11	초대 김창근 대사 신임장 제정
1996.10	제2대 이영민 대사 신임장 제정
1999.11	제3대 최승호 대사 신임장 제정
2002.10	제4대 태석원 대사 신임장 제정
2006.01	제5대 김일수 대사 신임장 제정
2007.09	공관 개설(이경렬 대리대사 부임) ※ 비쉬켄 한국교육원: 2001.5.28 개원
2008.07	상주 대사관 개설
2008.10	제6대 김병호 대사 신임장 제정
2012.02	제7대 김창규 대사 신임장 제정

다. 주요 인사교류

일시	내용
1997.06	아카예프 대통령 방한
2002.09	오스모노프 제1부총리 방한(아시안 게임 참관)
2002.11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키르키즈 방문
2002.11	오토르바예프 부총리 방한(중앙아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2003.02	주말리에프 부총리 방한
2003.07	아크나자로바 노동사회부 장관 방한
2005.08	천영우 외교정책.홍보실장 키르키즈 방문
2005.12	최일송 구주국장 키르키즈 방문
2006.05	라예프 문화부장관 비공식방한
2006.07	젝센쿨로프 외교부장관 방한
2007.11	아탐바예프 총리 방한
2008.04	아이다랄리에프 부총리 방한
2008.08	이윤성 국회부의장 키르키즈 방문
2008.09	이용준 외교부차관보 키르키즈 방문
2008.10	제7차 ACD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외교장관 회담
2008.10	자파로프 경제개발통상부장관 방한
2009.01	임재홍 외교부기획조정실장 방문
2009.02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 정책실장 방문 (해외건설시장 개척단 방문)
2009.03	한.키르키즈 교류친선협회 일원으로 국회 대표단 (김성태, 신성범, 유일호 의원) 방문
2009.05	사드코바 헌법재판소장 방한
2009.05	주영진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키르키즈 방문
2009.08	이사예프 외교부차관 방한
2009.09	노동일 경북대 총장 키르키즈 방문
2009.10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방문
2010.11	아이트무르자예프 외교차관 방한
2011.02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 키르키즈 방문
2011.08	양산시 경제사절단 키르기즈스탄 공식방문
2011.11	키르기즈스탄 방문단 양산시 공식방문(우호교류 및 경제협력 체결)
2012.04	주마르트 경제담당 부총리 방한
2012.05	바바노프 총리 방한

라. 협정체결 현황

일시	내용
1997.06	한.키르기즈 EDCF 차관 공여 협정
2002.04	한.키르기즈 SOFA 협정(2002.4.30 발효)
2006.07	한.키르기즈 관광협정
2007.06	한.키르기즈 항공협정(2007.6 발효)
2007.11	한.키르기즈 투자보장협정
2008.07	한.키르기즈 투자보장협정(2008.7 발효)
2008.05~11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가서명) ※ 1 차 실무회담(2008.5, 비쉬켈), 2 차 실무회담(2008.11, 서울)
2009.10	한.키르기즈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
2012.08	한.키르기즈 법무부협력에 관한 협정(MOU)

4.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요

키르기즈 공화국은 1998년 12월 CIS 국가 중 최초로 WTO 에 가입하는 등 소비에트 붕괴 이후 최초로 서구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카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부정부패, 소규모 인구,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대적 자원 빈곤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립 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및 토지개혁으로 경제적으로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러시아 모라토리엄과 금 생산량 저조로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되었다. 2003년 이후 전력발전 시설이 정비되고 농업 및 IT 산업, 도로건설 등이 해외 원조를 통해 육성되면서 7%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05년 대 정부 대중 소요사태(튠립혁명)와 국제 상품가격 상승, 금 생산 저조로 경제적 혼란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2005년 키르기즈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경제산업통상부에서 재무부로 국가경제정책을 위임하면서 이민주임위원회 등 신규 경제기구를 설립한다. 더불어 파리클럽회의에 대외 채무(1억2400만달러)의 탕감과 만기 연장 요청을 한다.

2006년 3월, 키르기즈 정부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지위를 신청하였는데 동 조치에 따라 대외 채무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였으나 외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정치불안은 키르기즈 투자환경에 절대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 Kurmanbek Bakyiev 정권이 외자유치(러시아의 10억 원조, 마나스 공항 미국 임대계약연장)로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09년 7월, Kurmanbek Bakyiev 는 압도적인 투표수로 재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2010년 4월 키르기즈는 물가불안정, 편중된 지역 정책, 소수민족간 갈등으로 민중 소요사태가 일어났으며 바키예프 대통령은 강제 하야되었고 Roza Otunbayeva 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2010년 6월과 같은 대대적인 폭력 민족 갈등은 현재까지 사회 불안요소로 남아있는데 2011년도 초 일어난 북아프리카(MENA)의 소요사태와 같은 민중 정변 사태로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8월 키르기즈스탄은 3정당이 연립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정치권의 안정을 통하여 경제의 안정도 도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속되는 민족 갈등은 국경 변화의 가능성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키르기즈스탄 경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GDP 는 6.4%감소한 수치인 1.8%에 그쳤으며, kumtor 금광의 금 생산 부진으로 인하여 금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수출량이 13.9% 하락하였다. 물가는 0.9% 증가하였으며, 2012년 말에는 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 적자는 작년 대비 21억숨 증가하였으며, 올해 말 총 180억 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4월 기준으로 외채 규모는 31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작년 대비 20%감소하였다.

러시아 및 CIS 국가 경제지표 비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실질 GDP 증가율(%)	러시아	8.1	5.6	-7.8	4.0	4.3	3.8
	우크라이나	7.3	2.1	-16.0	4.5	5.1	2.0
	카자흐스탄	8.5	3.2	1.2	6.9	6.3	5.6
	우즈벡	9.5	8.6	7.8	8.1	8.3	8.1
	키르기즈스탄	8.5	7.6	2.3	-1.4		
소비자물가상승률(%)	러시아	9.0	14.1	11.7	6.9	8.4	4.9
	우크라이나	12.8	22.3	16.0	9.4	8.0	3.1
	카자흐스탄	10.8	9.5	7.3	7.1	8.3	4.9
	우즈벡	6.5	6.5	8.6	14.1	9.7	2.7
	키르기즈스탄	10.2	24.5	7.1	8.0		
수출(십억 달러)	러시아	354.4	469.0	298.8	398.0	521.4	261.3
	우크라이나	49.2	62.9	41.5	51.8	68.4	65.8
	카자흐스탄	47.7	71.1	41.9	57.2	87.9	46.7
	우즈벡	7.6	9.8	9.5	10.7	15.1	7.1
	키르기즈스탄	1.3	1.8	1.4	2.0		
수입(십억 달러)	러시아	212.4	292.5	194.7	248.8	323.3	145.4
	우크라이나	60.4	78.3	46.0	58.9	36.0	32.2
	카자흐스탄	31.7	37.8	25.1	24.0	37.0	19.9
	우즈벡	3.9	6.4	6.5	10.6	10.1	5.9
	키르기즈스탄	2.6	3.7	3.0	3.2		
경상수지(십억 달러)	러시아	76.6	98.8	47.4	72.6	198.1	115.9
	우크라이나	-3.3	-11.0	-1.3	-2.6	32.4	33.6
	카자흐스탄	-5.9	6.0	-2.3	2.4	50.9	26.8
	우즈벡	3.2	5.6	4.5	3.5	6.8(e)	1.2
	키르기즈스탄	-0.3	-0.7	-0.1	-0.3		
환율(자국화폐/US\$, 연평균)	러시아	24.55	24.85	31.80	30.38	29.38	32.19
	우크라이나	5.05	7.7	7.80	7.94	7.97	7.99
	카자흐스탄	120.2	120.77	147.9	147.4	146.62	148.14
	우즈벡	1,288	1,383	1,468	1,467	1,715	1,926
	키르기즈스탄	37.32	26.57	42.90	45.97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IU(2012년 9월 기준)

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키르기즈의 2012년 GDP 성장률은 2007년 상승률(7.5%) 보다 현저히 낮은 1.8%에 그칠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전력 부족이었다고 분석된다. 2012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1.8%를 기록하였는데 전년동기 대비 급한 하락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경기의 연쇄효과(Knock-on Effects) 때문이다. 동 국가들은 키르기즈의 절대적 교역의존국가들인데다 키르기즈 취업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수용하고 있어 경제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GDP는 서비스 50%, 제조업 19.7%, 농업 17.4%, 건설 3.4%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르기즈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kumtor 금광의 금 생산 부진으로 인하여 금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출량이 13.9%하락하였다. 수입은 36.% 상승하였고 수입량에서 3분의 1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6.67억 달러(USD)로써 2011년 동기간 대비하여 2.1배 증가하였다.

키르기즈의 물가는 0.9%증가하였으며, 2012년 말에는 9%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예산은 세입이 170억 쉼(GDP의 34%)로써 2012년 말 연간 세입 규모는 910억 쉼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출은 179억 쉼으로 2012년 말 연간 세출 규모는 1090억 쉼을 예상하고 있다. 예산 적자는 작년 대비 21억 쉼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80억 쉼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4월 기준으로 외채 규모는 31억불에 달하며, 외국인 투자는 금년 중 작년 대비 20% 감소할 예정이다. 공식 실업률은 2.1%로 발표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르기즈스탄 향후 경제전망(2012-2013)

구분	2012	2013
GDP(증가율)	4.0	5.0
GDP(억 달러)	49	49
1인당 GDP(USD)	865	865
산업 생산 성장률(%)	6.7	6.7
수출 규모(억 달러)	23	27
수입 규모(억 달러)	43	50
정책금리(%)	28.5	25.5
인플레이션 (%)	4.5	6.8

자료: EIU, Global Insight

연도별 키르키즈 주요 경제 지표(2007-2011)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 (만명)		525	529	534	542	548
G D P	총액 (억 솜)	1,419	1,880	1,964	2,204	2,731
	(억 볼)	85	51	46	48	59
	성장률(%)	8.5	7.6	2.9	-1.4	5.7
	1 인당 GDP (달러)	715	940	845	810	861
산업생산 성장률(%)		7.3	14.9	-6.4	0.5	5.7
월평균임금 (USD)		106	148	141	148	N/A
인플레이션 (%)		10.2	24.5	6.8	8.0	16.6
평균환율(솜/USD)		37.32	26.57	42.90	45.97	46.14
대출금리 (% , 연말기준)		25.3	19.9	21.7	29.4	34.1
무역 (백만볼)	교역량	3,973	5,601	4,514	4,760	6,290
	수출	1,337	1,847	1,700	1,779	2,331
	수입	2,636	3,754	2,814	2,981	3,959
	무역수지	-1,299	-1,907	-1,114	-1,202	-1,628
총외채 (억볼)		32	35	25	24	31
외국인직접투자 (억볼)		4.4	8.6	5.5	2.6	8.4
경상수지(백만볼)		-263	-680	-300	-467	-177
실업률 (총인구 대비, %)		11.5	11.1	11.2	8.4	8.6
외환보유고 (백만볼, 금 제외)		1,107	1,153	1,494	1,604	1,703

자료: 키르키즈 중앙은행, 통계청, EIU, Global Insight

5. 주요 산업 동향

가. 전력분야

산악국가인 키르기즈는 총 252개 강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수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간 1,630억 kwh 전력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전력 소비의 90% 이상이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키르기즈는 총 18개의 발전소 있는데, 이중 16개는 수력발전소이며 2개가 화력발전소이다. 총 발전량은 3,713 MW이며 이중 80%가 수력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이 수력발전소는 Toktogul 저수지와 Naryn강에 위치하고 있고 2개의 화력발전소는 가스, 석유, 석탄 등이 이용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에 있어 전력산업은 GDP의 5%, 산업생산의 16% 국가예산수입의 10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분야이며,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일부 전력을 카자흐스탄 등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키르기즈 당국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관세 부과정책을 유보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2011년 전력 수출량은 약 26억 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키르기즈 정부는 전력수출을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로 공급되는 전력요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키르기즈 국내 가정용 요율은 kwh 당 1.6달러에 불과하며, 산업 및 농업용은 2.2달러이고, 공용 및 상업용은 2.3달러이나 현재 수출용 요율은 4.6달러 가량이다.

키르기즈의 전력분야에 고무적인 소식은 2010년 11월 러시아 자본이 대대적으로 투입된 Kambarata-2(1900만kwh)가 전력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동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키르기즈 전역의 1개월 전력소비량의 1.5% 가량으로 인접국(카자흐스탄) 전력 수출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Kambarata-2는 러시아 자본 17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였으며 바키예프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성과였다고 평가 받았던 사례이다.

나. 광산업

키르기즈의 주요 부존광물은 수은, 몰리브덴, 금, 텅스텐 등이며 주요 생산광물은 금, 수은, 안티몬, 텅스텐 등으로 한국의 전략광종(우라늄, 동, 아연, 유연탄, 철, 니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100여 년의 광산업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석탄, 원유, 구리, 납, 수은 등이 오랜 과거에서부터 개발되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동안 키르기즈 광산업은 구 소련의 특정 광물 생산지가 되었으며 안티몬의 경우 구소련 전지역에서 키르기즈가 유일한 생산지였을 정도였다. 현재까지 상당수의 광산업 기업들이 구소련 시절부터 운영되었으며 국영 회사인 키르기즈알틴(금 생산)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키르기즈 광산업은 금광 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인프라(전기, 철도, 도로 등)이 낙후되어 있는데다 자본유치의 어려움으로 금 생산조차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처로는 금광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 품위 및 매장량, 전력과 도로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광산업 관련, 대표적인 현지기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르기즈알틴(Kara-Balta Mining 사와 Makmak Gold Mining 사 운영) 국영기업이며 연간 25톤 이상의 금을 생산하고

있다. 금 관련 외국 투자 기업은 키르키즈알틴사와 합작투자한 Kumtor(캐나다 합작), 지루(영국), 돌드블락(호주) 등이며 연간 20톤 가량의 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Kadamjay Antimon사는 전세계 안티몬의 15%를 생산하고 있다. 2012년 현재 Kumtor광산의 금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금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키르키즈는 다량의 원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기준 68.8톤의 원유와 14.9백만 CBM의 천연가스가 생산되었는데 동 생산량은 키르키즈 전체 수요의 약 3%에 지나지 않는다. 석탄의 경우, 1970년대에는 연간 490만톤의 생산을 했으나 현재는 190만 톤 정도이다.

키르키즈스탄 주요 광물매장량

광종	키르키즈	세계	키르키즈비중	세계순위
수은(톤)	7,500	67,000	11.2%	2
몰리브덴(천톤)	180	19,000	0.94%	11

자료: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키르키즈스탄 주요 광물생산량

광종	키르키즈	세계	키르키즈비중	세계순위
금(톤)	25.9	2,186	1.2%	17
수은(톤)	250	1,960	12.7%	2
안티몬(톤)	1,300	154,680	0.8%	7
텅스텐(톤)	100	61,852	0.2%	8
몰리브덴(톤)	250	133,000	0.2%	12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09

키르기즈 주요 광업회사

광 물		회 사 명	연간생산능력(톤)
안티 모니	광산	Kadamzhay and Khaydarkan 컴플렉스	2,400
	금속	Kadamzhay Metallurgical 컴플렉스	28,000
석 탄		Seven Underground 광상	2,200,000
형석, 정광		Khaydarkan Mining and Metallurgical 컴플렉스	5,000
금	광산	Makmalzoloto	3
	광산	Kumtor Gold	22
	광산	Solton-Sary Mine	N/A
	제련	Kara-Balta Refinery	22
수 은	광산	Khaydarkan Mining and Metallurgical 컴플렉스	700
	금속	Khaydarkan Mining and Metallurgical 컴플렉스	1,000
몰리브덴		Molibden JSC	N/A
회토류	정광	Kyrgyz Mining 컴플렉스	14,000
	화합물	Kyrgyz Chemical and Metallurgical 공장	8,000
우라늄(비가행)		Kara-balta 컴플렉스	N/A

자료: Mineral Yearbook, 2009, USGS

주요 광산 현황

광산명	광 종	회 사	생산량 (톤, 2009 기준)	품 위	매장량 (백만톤)
Kumtor	금	Centerra Gold - Kyrgyzaltyn 16% - Cameco 53% - World Bank 2%	22	3.52g/t	58.5
Makmal	금	Kyrgyzaltyn	3	1.61g/t	3.2
Khaydarkan Mercury Mine	수은	키르기즈 정부	700	N/A	N/A
Kadamdzhaysk Antimont Mine	안티모니	키르기즈 정부	2400	N/A	N/A
Tyanshankolov	텅스텐 주석	Novosivirsk Tin 50% 개인 50%	W: 100, Sn: 500 (정광)	N/A	N/A

자료: Raw Materials Data 2009

1) 금

키르기즈의 금 총 매장량은 1000~1500톤이며 잠재매장량은 3000~4000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광상은 Kumtor로 약 400톤 이상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Chalkuiryuk-Akdzhylga가 약 100톤 이상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25~100톤 가량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광상은 Jerroy, Makmal, Ishtamberdy, Chakush, Altyn-Dzhylga, Taskain, Kuru-Tegerek, Kanyzak, Andash, Kichisandyk, Aktyube-Karagoiskoe, Bozymchak, Tokhtazan, Togolok, Karakala, Nichkesu, Suhoe Ozero, Chonkimisdykty 등이다. 키르기즈스탄에서 2011년 기준으로 금은 수출의 51.1%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최근 키르기즈의 대표적인 금 광산이라 할 수 있는 Kumtor는 Centerra Gold 사(캐나다 Cameco사와 키르기즈 정부 합작사)가 운영 중이다. 키르기즈의 금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Kumtor금광은 2010년 17.7톤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8.1%가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도 동일선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키르기즈은 금산업 위존도는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키르기즈스탄의 Kumtor 금 광산은 금 생산량을 2011년 583,156온스 (18.1톤)에서 2012년 575,000~625,000온스 (17.8~19.4톤)까지 약 7.2% 증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통계 위원회에 따르면 Kumtor는 키르기즈스탄 GDP의 11.7%와 2011년 산업생산의 26.1%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편, Kumtor 외의 타 금광 개발 기업들은 키르기즈 금광 개발 투자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단 예로 Jerooy 금광 개발 투자사인 Global Gold Holding은 2006년 7월 개발권 획득 및 개발 투자를 위해 2억3000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나 기술적 설계 및 탐사 시설 건설 사업이 실패하면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Andash 금광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Kentor Gold(호주)사는 2011년 1월, Talas(키르기즈 북부지역) 지역 주민들의 대대적인 환경파괴 시위를 벌임으로써 중앙정부의 개발권 파기설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Centerra Gold 사는 위와 같은 환경으로 인하여 금 생산량의 큰 타격을 입어 기존의 575,000~625,000 oz에서 390,000~410,000 oz로 1/3가량 급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 석탄

현재까지 확인된 석탄 광상은 70개로 이중 4개의 탄전(South Ferganski, Uzgenski, North Ferganski, Kavakski)과 3개의 석탄 지역(Alai, South Issyk-kul, Alabuka-chatyrkulski)로 형성되어 있다.

구역	광산
North Ferganski 분지	Arkit, Padsha-Ata, Hodzha-Ata, Tegenek, Kara-Tut, Tashkumyr, Mailisu
Uzgenski 분지	Kok-yangak, Kumbel, Kuldambec, Menteke, Kargasha, Korkkiya, Tuyuk, Zindan, Tarielga, Turgaitepe, Karatyube, Beshterek, Chitty, Aksur, Surtash, Aldyyar, Sokutash
Alabuka-Chatyrkel 구역	Aksai, Turuk, Torugart
Southern Issyk-kul 구역	Dzhergalan

자료: 대한광물자원진흥공사

3) 우라늄

키르기즈에는 10개 정도의 우라늄 광상이 존재하는데 이중 Kadzhysai, Kavak, Mailisai, Tuyamuyun, Shakaptar 우라늄 광상이 개발상태이나 선광이 중단된 상태이다. 매장량은 약 3만3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소유모 광상들이다. 대한광물자원진흥공사는 품위 0.3% 이상이며 매장량이 8000톤 이상인 ISL형 사암광상이 투자 가치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매장량으로 석탄공존형이기에 선광에 문제가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4) 석유 및 가스

키르기즈 의회 국제협력위는 지난 6월 키르기즈 가스공사인 Kyrgyzgaz의 정부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러시아 정부와 그 합의서 초안이 승인되었다. 2009년 2월 키르기즈-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Kyrgyzgaz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키르기즈 정부는 동사 지분 75%를 러시아 Gazprom에 매각하고 Gazprom은 향후 3년간 키르기즈에 3억달러를 투자하는 골자였다. 2009년 상반기 Gazprom 사는 탐사비용으로 이미 3000만달러를 할당하였다.

키르기즈의 연간 가스소비량은 9억 CBM인데 이는 국내 수요의 2%에 불과한 상황이며 대다수는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즈베크 수입 가스 가격은 1000CBM 당 240달러이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있어서, 원유/가스법, 석탄법 등 광업 법규가 상충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시장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세법은 광산 개발 심도와 관련하여 여타 광업 관련 법규와 충돌되고 해석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키르기즈의 가장 주용한 산업분야로써 전체 노동인력의 65%(약 95만 명)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가공업에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약 5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286개 개인 농장과 1,200개 이상의 조합 및 협회 등이 농업분야 개혁과정에서 설립되었으나 키르기즈 농업은 원활치 못한 비료 공급과 구시대적 작물 돌려짓기, 기계들의 낙후 등으로 생산성이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개혁으로 농지가격이 상승되어 농가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금융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긴 하나 대외적 경제상황으로 생산성이 둔화된 상황이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농업분야발달의 저해요인중의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농업분야의 GDP 비중이 커, 정부의 해외 ODA 자금확보 및 차관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지고 있다.

라. IT 분야

키르기즈 통신부문은 연간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성 방송 도입으로 65개 이상의 지역이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전화 및 장거리 전화망도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경우 가입자수가 연간 25%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르기즈 국영기업인 Kyrgyztelecom은 독점적으로 키르기즈 전역에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프라 개선(통신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키르기즈는 국민의 90% 이상의 PC가 인터넷 망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 관광분야

키르기즈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려질 만큼 자원경관이 매우 뛰어나 관광부문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의 93%가 산악지대이며 천연 호수와 폭포, 빙하 지역들이 많으며 히말라야와 파미르 고원 다음으로 높은 Pik Pobedy(7,439m)와 Pik Lenin(7,134m), Khan Tengri(6,995m) 등 세계적인 명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쉬쿨이라는 호수는 소비에트 시절부터 유명한 관광지였으며 2006년을 기점으로 개발(호텔 및 도로 구축)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키르기즈의 연간 관광수입 잠재력은 약 4~5억 달러로 2005년부터 정부 주력 개발 산업으로 지목 받아왔다.

한국에도 현재 잘 알려져 있는 이쉬쿨 호수는 쿤케이 알라타우와 테르스케이 알라타우 지역의 4,000m 봉우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1,600m, 길이 170km, 너비 70km로 남미의 티티카카 호수 다음으로 큰 호수이다. 송어, 백표범, 야생멧돼지, 곰 등이 서식하고 있고 온천과 초원, 계곡, 절벽 등 경관을 이루고 있다. 최근 리조트 건설 등 관광개발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바. 건설업

2005년 건설 부문 총생산은 97억 7,810만 쉼(약 2.32억 달러)이었으며, 주로 수력 발전소, 도로, 산업단지, 농촌지역 상수도망 건설 등 인프라 구축과 학교 및 주택 건설 등이 건설 사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주택문제는 심각한 상황인 바, 166,000 이상의 가구가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나, 재정능력의 한계, 저소득 등으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주택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키르기즈스탄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2005년의 경우 주택건설이 3.3% 감소되는 등 주택 공급도 문제가 있었으나, 2006년 이후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주변국이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 급등 및 카자흐스탄 자본 유입 등의 영향 등에 힘입어 2007년 들어 키르기즈스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건설 사업이 크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카자흐스탄의 금융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키르기즈 건설부문 또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4월 세계은행(WB)는 체육관, 정수장 등 인프라 시설을 키르기스스탄에 건설하여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도모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키질투우지방의 체육관을 비롯해 침코르곤 수질개선을 위한 파이프교체, 정수시설, 콘트롤 타워 설치 등이다. 또한 나린 오블아스트에 섬유직업학교를 설립하였다. 위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공동체 개발투자청(ARIS)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과의 MOU 체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수출입동향

가. 키르기즈 교역 현황

연도별 키르기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역량	1,659.8	1,773.3	2,512.2	3,546.3	5,690.0	4,480.8	5,265.0
수출 (증감율)	718.8 (23.6)	672.0 (-6.5)	794.0 (18.2)	1,134.2 (42.8)	1,617.6 (42.6)	1,439.8 (-28.8)	2,067.0 (44.4)
수입 (증감율)	941.0 (31.2)	1,101.3 (17.0)	1,718.2 (56.0)	2,412.1 (40.3)	4,072.4 (68.8)	3,041.0 (-25.3)	3,237.0 (6.4)
무역수지	-222.2	-429.3	-924.2	-1,277.9	-2,454.8	-1,601.2	-1,209

주: WTA(2012년 8월 기준)

키르기즈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대외무역 규모가 60억 달러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하였다. 수출규모는 23억 2,7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가 증가하였으며 수입규모는 37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가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키르기즈 수입감소 속도는 수출감소 속도를 상회하였는데 수입의 급감 원인은 일반 소비자의 위축이었다. 키르기즈 소비 부족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이었으나 주변국(러시아, 카자흐스탄)들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송금액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키르기즈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Mr.Akylbek Japarov 에 따르면 대 러시아 수출 실적이 전년대비 6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 러시아 수입감소(31% 감소)를 상회한 결과이다. 대 러시아 수출감소는 2009년 6월 모스크바 셰르키조프(Cherkizov) 시장이 폐쇄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키르기즈 산 상품들은 러시아의 셰르키조프 시장에서 크게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소 원인이 된 것이다.

한편, 2009년 키르기즈 전력 수출은 약 10억 kwh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7월부터 키르기즈 대 카자흐스탄 전력 수출의 재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 카자흐스탄 전력 수출은 2009년 기준 5억 4,300kwh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키르기즈는 동 전력수출을 2008년에 선수금을 수령하였으며 kwh 당 약 4.5 달러에 이른다.

전체 전력수출에는 대 우즈베크 전력수출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 공급 전력요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당분간 키르기즈는 전력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키르기즈 국내 일반 가정 부과 요율은 1.6 달러에 불과하며 산업 및 농업용 요율은 2.2 달러, 공공요율 및 상업용 요율은 2.3 달러 이다.

2009년 키르기즈의 경상적자는 3억달러(GDP의 64%)에 달했었고 2010년은 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GDP의 8.8%에 해당되는데 주요 수출품인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적자폭이 줄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적자폭은 GDP의 10%에까지 이르는데 이는 전년도의 정치 및 사회 불안 사태에 따른 투자 감소와 금 가격에 편중된 수출 구조, 전반적인 산업생산량의 감소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키르기즈 주요 국가별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별	수출			수입			점유율(%) (2010 기준)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총 계	1,617.6	1,439.8	2,067.0	4,072.4	3,041.0	3,237.0	100
러시아	316.5	185.3	257.7	1492.4	1090.4	1094.0	25.7
홍콩	44.4	19.4	28.6	728.2	623.6	666.3	13.2
카자흐스탄	184.1	140.6	181.7	376.6	339.9	379.1	10.7
독일	17.7	5.3	5.8	335.9	100.7	88.6	1.8
우즈베키스탄	232.5	167.6	40.2	160.1	111.7	104.6	2.7
미국	4.3	38.1	90.3	119.8	101.6	191.5	5.4
우크라이나	6.1	2.8	5.4	94.1	89.3	104.6	1.7
터키	44.9	36.7	37.2	91.1	72.8	84.7	2.3
한국*	1.0	3.1	0.7	83.2	51.2	45.8	0.9
벨라루시	5.3	3.5	6.4	42.5	74.0	53.5	1.1
네덜란드	0.9	2.7	1.8	41.8	49.5	24.2	0.5
캐나다	0.9	16.9	16.7	30.8	19.3	17.9	0.7
스웨덴	0.1	-	-	30.3	8.7	-	-
영국	3.5	10.7	9.3	27.6	11.4	16.6	0.5
이탈리아	3.0	0.2	-	18.9	10.1	-	-
프랑스	108.2	184.9	38.2	18.3	20.8	31.4	1.3
인도	0.6	3.6	-	14.0	15.2	-	-
벨기에	11.9	11.3	-	13.2	13.6	-	-
아랍 에미리트	50.7	101.7	302.2	12.0	5.8	9.6	5.9
오스트리아	-	0.7	-	10.9	7.8	-	-
아제르바이잔	2.6	1.3	1.6	10.5	3.9	4.2	0.1
이란	12.0	7.4	-	9.7	6.2	-	-
스위스	440.5	444.8	387.9	8.8	14.1	13.1	7.6
몰도바	0.7	1.3	0.9	3.5	3.1	2.9	0.1
타지키스탄	27.3	15.8	15.4	3.5	3.7	2.7	0.3
몽골	1.5	1.8	-	3.3	0.2	-	-
이스라엘	-	-	-	3.2	1.5	-	-
투르크메니스탄	4.3	4.3	5.8	2.2	1.1	1.1	0.1
파키스탄	0.2	0.2	-	1.9	2.8	-	-
그루지아	1.2	0.9	-	1.6	2.0	-	-
아프가니스탄	48.0	18.8	-	0.6	0.3	-	-

주: 한국무역협회 통계치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2012년 8월 최신 통계자료)

나. 교역대상국별 품목 및 동향

키르기즈스탄의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자원으로 대부분 전력과 관련된 상품(가스, 연료 등)이며 주요 수출품목 또한 광물자원으로 금이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교역의 특징은 크게, 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전력 관련한 수입이 크다는 것, 그 밖에 생필품(식료품 포함)과 같은 생계형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2006 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등의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품목별 수입통계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규모 (천톤)	금액	규모 (천톤)	금액	규모 (천톤)	금액	규모 (천톤)	금액
총 계		2,412.1		4,072.4		3,041		3,237
Kerosene	408.7	227.3	505.1	464.1	623.2	298.4	451.2	349.2
Benzine	434.9	216.6	509.1	332.7	525.6	249.7	394.4	270.3
Diesel oil	289.1	140.5	194.2	141.3	220.3	91.9	221.8	129.6
Natural gas (mln m3)	0.8	75.2	0.7	106.8				
Medicines	-	74.1	4.5	90.1	-	78.5	-	85.7
Wheat	358.8	69.9	304.0	87.9	341.1	62.6	328.4	56.7
Flour	65.3	15.3	111.0	46.8	69.4	22.2	21.8	6.4
Chocolate products	15.0	31.5	15.8	45.3	15.7	45.8	12.9	41.1
Rolled Ferrous metals	33.3	23.8	55.6	38.5	51.8	36.1	45.5	34.5
Tyres (thousands pcs)	1.5	44.6	1.3	37.0	1.2	35.5	-	-
Vegetable oils	21.2	20.3	25.1	36.3	34.0	35.3	37.0	42.9
Meet and food byproducts	33.7	22.5	50.6	36.3	63.4	44.5	87.0	66.9
Sugar	51.2	23.7	60.0	32.1	81.2	45.8	58.6	43.9
Cigarettes and cigars	3.5	27.8	3.2	31.0	2.4	26.1	1.9	22.3
Automobiles(pcs)	1.6	14.1	2.0	28.2	0.8	14.3	0.7	14.8
Coal	728.4	13.8	975.7	25.6	694.4	22.3	960.2	32.4
Beer (thousands of litres3)	30.2	19.4	31.0	23.4	26.3	17.8	18.7	13.7
Milk and dairy products	7.8	15.6	9.5	20.4	9.6	15.	7.4	13.3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2012년 8월 최신 통계자료)

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2007		2008		2009		2010	
	규모 (천톤)	금액	규모 (천톤)	금액	규모 (천톤)	금액	규모 (천톤)	금액
총 계		1,134.2		1,617.6		1,439.8		2,067.0
Gold	-	472.83	-	463.48	-	529.47	-	230.71
Cement	520.9	400.49	472.4	47.125	9.0	747	366.8	13.073
Vegetables	127.1	46.079	110.2	37.608	122.0	43.831	48.7	12.723
Fruits	60.5	18.684	121.5	36.336	96.2	23.999	15.8	2.236
Milk and dairy products	37.4	29.221	32.0	33.127	25.6	24.040	24.5	16.152
Glass	10.7	38.197	7.5	32.106	0.6	1598	12.5	32.69
Electric energy (mln of kW/h)	2.4	32.478	0.6	25.105	9.1	37.322	2.7	20.447
Cotton fibber	32.8	29.246	23.7	23.728	22.0	21.504	52.3	41.365
Electric filament lamp	0.2	20.02	0.1	21.079	0.1	16.625	0.2	15.627
Tobacco	6.4	12.227	6.4	14.867	4.9	14.209	8.3	11.504
Skins of cattle (thousands pcs)	1.2	7.39	1.3	9.656	304.8	12.659	0.9	6.453
Skin of sheep (thousands pcs)	3.2	3.478	1.7	1.866	503.1	301.8	1.6	2.061
Coal	99.0	1.773	109.3	1.764	11.5	488.7	8.9	0.089
Wool	2.5	2189.8	1.7	1.565	1.9	1.498	2.1	2.353
Flour	0.7	0.18	1.0	0.404	0.5	0.0815	0.8	0.172
Wool fabrics (thousands m2)	0.2	0.485	0.1	0.277	0.1	0.438	0.2	0.549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2012년 8월 최신 통계자료)

2006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 출	수 입
희귀금속(26.8%)	광물(가스 포함) (30.7%)
광물 및 전력(22.4%)	기계 및 장비(15.8%)
섬유(12.2%)	석유화학제품(8.5%)
기계 및 기계부품(6.4%)	식료품(8.2%)
플랜트 제품(4.6%)	운송기기(7.9%)
기타 (27.6%)	기타 (%)

2007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 출	수 입
광물 및 전력(29.1%)	광물(가스 포함) (32.2%)
희귀금속(20.1%)	기계 및 장비(14.2%)
섬유(10.8%)	석유화학제품(9.2%)
플랜트 제품(7.1%)	식료품(7.7%)
기계 및 기계부품(6.2%)	운송기기(5.9%)
기타 (26.7%)	기타 (8.8%)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

2008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 출	수 입
희귀금속(29.9%)	광물(가스 포함) (30.5%)
광물제품(27.9%)	운송기기(15.4%)
섬유(8.2%)	기계 및 장비(11.2%)
플랜트 제품(5.9%)	석유화학제품(7.1%)
기계 및 기계부품(3.4)	식료품(6.2%)
기타 (24.7%)	기타 (39.9%)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

2009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 출	수 입
희귀금속(32.1%)	광물(가스 포함) (28.7%)
광물제품(25.8%)	식료품(11.2%)
섬유(7.9%)	기계 및 장비(10.9%)
플랜트 제품(6.4%)	운송기기(6.2%)
기계 및 기계부품(3.6%)	석유화학제품(5.4%)
기타 (24.2%)	기타 (21.3%)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

2010 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 출	수 입
희귀금속(32.1%)	광물(가스 포함) (28.4%)
광물제품(25.8%)	운송기기(17.2%)
섬유(7.9%)	기계 및 장비(10.9%)
플랜트 제품(6.4%)	석유화학제품(5.4%)
기계 및 기계부품(3.6%)	식료품(8.8%)
기타 (24.2%)	기타 (29.3%)

자료: 키르기즈 통계청(2012년 8월 최신 통계자료)

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한-키르기즈스탄 교역은 실적으로 1992년부터 이루어졌으며 2007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 경기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40%가 감소하였다.

주요수출품목은 의류(40%비중), 자동차 및 부품(20%비중), 플라스틱(8%비중) 등이며 수입품목은 곡물(30%비중)과 한약자재에 한정되어 있다.

2011년 대 키르기즈스탄 한국 수출은 35.9%가 증가했는데 특히 건설중장비(219.4%), 폴리에스터 직물(126.3%), 커피류(85.9), 화물자동차(79.2%), 합성수지(79.2%)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도 떠오르는 수출 품목으로 칼라TV와 의료용 기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키르기즈스탄의 사회 및 정치 불안이 지속되면서 한국 교민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 키르기즈스탄 수출의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키르기즈스탄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월~6월)
교역량	83,265	126,983	168,910	101,291	107,248	144,179	81,848
수출	81,947 (23.2)	125,611 (53.3)	166,270 (32.4)	100,094 (-39.8)	104,537 (4.4)	142,069 (35.9)	81,817 (22.7)
수입	1,318 (-17.1)	1,372 (4.1)	2,640 (92.4)	1,197 (-54.6)	2,711 (126.4)	2,110 (-22.2)	31 (-97.9)
무역수지	80,629	124,239	163,630	98,896	101,826	139,959	81,786

주: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KITA, WTA

나. 우리나라의 對 키르기즈스탄 수출 동향

주요 품목별 대 키르기즈스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0		2011		2012(1월~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4360	편직물	40,781	0.7	54,658	34.0	31,233	33.8
2	7411	승용차	13,082	-17.6	17,541	34.1	13,587	76.8
3	2140	합성수지	13,439	78.6	24,086	79.2	9,651	-38.1
4	7412	화물자동차	5,072	49.5	9,091	79.2	7,533	128.2
5	4342	폴리에스터직물	1,417	91.5	3,206	126.3	2,775	74.4
6	8211	칼라TV	0	-98.3	2,163	1,984,570.6	1,924	634.0
7	7251	건설중장비	399	-73.4	1,270	218.4	1,862	286.8
8	0154	연초류	3,615	-39.0	5,534	53.1	1,614	-66.0
9	4411	편직제의류	2,474	-8.8	2,487	0.5	1,574	72.3
10	7420	자동차부품	1,032	-68.8	1,682	62.9	1,476	46.3
11	3203	타이어	785	-45.3	1,808	130.5	1,330	190.2
12	1336	윤활유	1,024	-49.9	1,380	34.9	664	-21.9
13	7121	운반하역기계	1,402	1,401,672.0	874	-37.6	515	43.2
14	0151	커피류	1,650	-8.4	3,068	85.9	483	-54.0
15	4490	기타섬유제품	1,073	-13.5	1,892	76.3	373	-28.0
16	0143	소스류	90	237.6	492	447.5	323	154.4
17	8242	에어컨	137	152,323.3	84	-38.8	297	253.5
18	8230	냉장고	174	49.8	149	-14.1	253	261.8
19	8147	의료용전자기기	148	71.2	144	-2.5	229	134.6
		총계	104,537	4.4	142,069	35.9	81,817	22.7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 우리나라의 對 키르기즈스탄 수입 동향

주요 품목별 대 키르기즈스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0		2011		2012(1월~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0156	식물성한약재	105	-11.0	46	-56.5	21	-
2	8341	스위치	2	-	5	184.6	4	510.8
3	8146	X 선및방사선기기	-	-	0	-	2	-
4	1290	기타비금속광물	17	40,086.1	0	-99.7	2	-
5	4490	기타섬유제품	-	-	0	-	1	-
6	9110	서적	0	-	0	-	1	1,806.5
7	5790	기타공예품	-	-	0	-	0	-
8	7215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0	-	0	-	0	-
9	0319	기타목재류	-	-	0	-	0	-
10	0136	사료	-	-	0	-	0	-
11	0135	박류	-	-	0	-	0	-
		총계	2,711	126.4	2,110	-22.2	31	-97.9

자료: 한국무역협회

8.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개요

키르기즈 FDI의 특징은 크게 원조성 투자와 인접국 투자 의존도, 금광 개발사업 투자로 구분지을 수 있다. 유럽 및 미국의 투자는 대부분 원조성 투자에 해당되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투자는 금융 및 전력개발사업에 해당된다. 한편, 금광 개발 사업으로의 투자는 캐나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광 개발 기업인 Cameco의 Kumtor 투자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키르기즈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Mr. Japarov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키르기즈 FDI는 1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30%가 증가하였다. 주요 투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은 주로 금융부문과 제조업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일부 제조업, 정보통신부문과 수력발전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중국도 주요 투자국의 하나로 제조업 및 광물개발부문(금광, 유전 및 가스, 텅산 철광산)에 집중 투자중인 것으로 파악 된다.

2010년 외국인 투자로 주목받을 만한 사례는 러시아의 Kambarata-2 전력발전소 투자로 총 투자액은 약 17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사업은 바키예프 정권의 유일한 경제성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 정권에서야 동 발전소가 전력 양산체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동 발전소 전력 생산으로 키르기즈 인접국 전력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산업동향'의 전력부문 참조할 것).

키르기즈스탄 국가별 FDI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국가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95 ~ 2010
카자흐스탄	40.34	136.84	182.71	360.97	189.08	7.82	961.82
캐나다	26.13	8.79	6.30	95.86	19.73	93.22	623.26
영국	29.48	37.97	60.10	73.93	11.01	4.72	300.85
독일	36.45	53.42	28.63	47.79	8.15	10.13	259.62
터키	16.11	12.81	16.56	12.76	34.81	4.20	255.27
미국	11.72	6.36	13.03	6.29	23.59	2.87	215.15
중국	4.51	7.32	29.09	57.53	51.19	29.21	215.95
러시아	8.13	19.79	13.35	36.18	41.55	23.64	195.72
한국	0.45	0.69	2.68	24.34	11.89	14.85	97.32
키프로스	10.52	22.93	8.10	11.36	1.97	-	71.22
기타 국제 기관	0.86	4.82	18.03	39.28	9.19	5.98	82.32
호주	4.89	3.45	5.52	18.12	21.89	3.84	68.13
유럽부흥개발은행	0.29	4.77	7.83	8.24	0.88	0.01	23.66
아랍 에미리트	1.10	3.12	1.66	4.78	1.77	0.60	24.92
헝가리	-	-	11.46	9.54	-	-	21.46
스위스	1.65	0.43	0.47	0.11	1.38	0.10	22.80
파키스탄	0.40	0.66	3.90	12.63	1.72	1.81	22.09
이란	1.05	1.15	0.90	7.77	3.87	2.82	23.03
네덜란드	0.00	0.01	0.06	-	0.01	-	15.93
오스트리아	-	0.00	15.03	0.20	0.04	-	15.57

국가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95 ~ 2010
인도	0.28	1.30	1.51	4.68	0.41	0.01	15.66
포르투갈	7.64	0.86	-	0.18	0.5	-	13.58
이탈리아	0.36	-	0.17	-	-	-	12.88
아프가니스탄	0.00	-	-	11.00	0.02	-	12.54
일본	-	-	-	0.01	0.00	-	10.58
투르크메니스탄	-	-	0.15	-	34.81	-	44.19
이스라엘	4.78	0.54	0.91	0.00	2.23	0.03	11.62
벨라루스	0.59	0.30	0.86	3.36	0.75	-	8.71
말레이시아	-	-	-	-	-	-	7.57
버진 제도	0.28	3.01	0.30	2.23	11.01	-	17.29
쿠웨이트	0.97	0.46	1.08	2.14	4.89	0.41	11.37
우즈베키스탄	0.03	0.21	0.91	0.51	0.04	0.04	5.80
우크라이나	0.21	0.07	3.25	-	0.03	0.01	5.08
리투아니아	0.25	1.36	1.18	0.74	0.15	0.05	5.07
프랑스	0.00	0.03	0.04	0.07	0.00	0.01	4.50
라트비아	0.00	0.01	0.01	3.78	4.52	-	8.70
타지키스탄	0.08	-	0.27	0.54	-	-	3.94
아일랜드	0.00	0.00	-	-	-	-	2.82
사모아 제도	-	-	1.45	1.27	-	-	2.72
폴란드	0.00	0.06	0.02	0.16	1.05	0.49	3.55
도미니카	-	-	0.45	1.31	0.38	-	2.14
홍콩	-	-	-	1.56	1.28	2.73	5.57
리히텐슈타인	0.02	0.02	0.02	0.02	-	-	1.45
모로코	0.68	-	0.68	0.02	4.07	-	5.46
요르단	0.02	-	0.37	0.88	-	0.07	1.34
세르비아	-	0.07	0.07	0.49	1.52	-	2.15
벨기에	-	0.08	0.03	0.11	-	0.06	0.44
스페인	0.01	0.01	0.04	-	-	-	0.23
아제르바이잔	-	-	-	0.00	0.05	-	0.22
이집트	-	-	-	-	-	0.25	0.37
아르메니아	-	-	0.00	0.04	0.07	-	0.11
총 계	210.31	335.58	440.07	862.95	566.74	248.85	3,743.74

자료: 키르키즈 중앙은행(2012년 6월 최신 자료)

키르기즈스탄 산업별 FDI 동향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998 ~2010
총 계	175.5	210.3	335.5	440.0	862.9	556.7	248.85	3,380.06
제조업	92.97	94.78	141.01	134.93	241.17	67.87	140.39	1,149.76
금융업	10.81	41.02	61.85	113.11	344.69	236.12	-	839.37
무역업	24.58	21.84	26.69	39.8	56.2	47.04	13.58	375.18
부동산업	8.79	7.37	25.28	60.12	146.71	-	68.20	301.68
광업	9.95	24.31	55.78	54.64	7.5	7.55	0.18	202.58
건설업	5.82	12.12	9.12	12.54	48.95	16.54	4.25	175.98
운송업	6.88	4.75	9.28	13.49	17.58	22.31	12.15	200.45
호텔 및 레스토랑	0.96	2.49	1.95	2.69	2.39	4.78	1.76	37.62
농림업	9.75	0.76	3.56	4.27	0.58	0.02	0.00	26.73
교육	1	0	0	0.31	0	0.07	0.01	26.41
의료복지	0.76	0	0.8	0	0.4	0.4	-	7.51
공공서비스	0.42	0.67	0.01	0.92	0.04	0.47	0.02	31.62
가스, 전력 (수력)	2.2	0.1	0.01	0.02	-	0.93	-	2.76
정부운용 예산원조	0.68	0.08	0.25	-	-	-	-	2.40

자료: 키르기즈 중앙은행(2012년 6월 최신 자료)

나. 우리기업투자동향

2008년 키르기즈 FDI 실적은 2억3,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한 것이고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CIS 국가들로부터의 투자(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15% 증가하였고 전체의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최근 투자 동향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키르기즈 중앙은행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전년대비 9% 가량 증가하였고 2008년 한해동안 60만달러에 불과하나 한국수출입은행 집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약 1,200만달러, 2008년 기준 약 3,300만달러 이르는 등 급격한 투자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업과 건설업 및 부동산 분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건설업의 경우 Artis Global(회장: 구창모), 휴먼텍, UTI 사의 투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Artis Global과 휴먼텍은 1,500세대 규모의 서민 아파트를 비쉬켄에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투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분기 기준, 대 키르기즈 한국 투자금액은 약 600만달러로 집계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2배이상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인 투자가 줄긴하였으나 특히 건설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전년대비 1/4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대 키르기즈 한국기업의 건설업 투자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진척되었던 주택 및 상가 사업이 연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광업부문 투자도 소폭 증가하였으며 농업부문 투자는 2010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한국의 키르키즈 2009-2011 년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농업, 임업, 어업	-	7	-	0	164	-	0	164	-
광업	8	28	5	2,781	3,818	543	1,196	2,235	1,010
제조업	0	2	0	0	1,000	0	119	221	20
건설업	1	0	2	7,000	15,000	54	3,963	7,710	941
도매 및 소매업	1	0	-	1,500	0	-	1,100	300	-
운수업	-	-	-	0	0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2	-	15	6,001	-	1,350	1,418	-
전문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0	1	-	0	1,645	-	0	35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2	1	60	400	50	0	8	0
숙박 및 음식점업	0	-	-	0	0	0	515	-	-
총 계	15	44	13	11,505	28,328	2,458	8,534	12,220	2,9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 키르키즈 한국 투자현황

연도	신고건수	투자금액(천달러)
1998	2	5,800
1999	3	2,650
2000	1	350
2001	1	180
2002	1	40
2004	0	0
2005	2	355
2006	6	732
2007	28	12,824
2008	50	33,179
2009	15	8,534
2010	44	12,220
2011	13	2,872
2012 상반기	6	695
총 계	168	80,39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키르기즈 교민 사업자 현황

쥬이랜드, 한길테크, 아세아 유니온건설, BNK 볼링장, 웰탁물탱크, 우진트렌스, 트레이드 코리아, Blue Chip, 메가젠의료기기, 창 텔레콤, 24 시, 두미실업, 파크주택, 룩스, 대주알라투, 동화, 원단도매업체, 마당쇠 정비, 대우가스보일러, KIBC, 벨엘식당, 에어 키르기즈, 금화무역, KYRCO, 청기와 식당, 시나브로, 셀라건강원, 천산중장비, 목화가공업, 골든스타, 최가네민박집, 테란인터내셔널, 아티즈 글로벌, 원단도매업체, 생약수출업체, P&P 인베스트, 웰빙건강원, 대원중장비, 아멕스 해운, E.P.I, 돌나라, 시크스포츠, 한농마을, 영진 GLS/물류화물, 암부렐라, 케이티네트, 마리나, 화인, 케엔비모터스, 미스 꾸리썬, EUVO, 씨엔엔, 영도벨벳, 케케아, UB 컴네트, 이건주한의원, 광물, 포테이토 벨리, 코레이도, 서울시트카바, 벽돌공장, 골든키엔 컴퍼니 등이 진출 해 있다.

자료: 주 키르기즈 한국대사관

9.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투자 동향

2008년 키르기즈 FDI 실적은 2억3,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한 것이고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CIS 국가들로부터의 투자(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15% 증가하였고 전체의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근 투자 동향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키르기즈 중앙은행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전년대비 9% 가량 증가하였고 2008년 한해 동안 60만 달러에 불과하나 한국수출입은행 집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약 1,200만 달러, 2008년 기준 약 3,300만 달러 이르는 등 급격한 투자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업과 건설업 및 부동산 분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건설업의 경우 Artis Global(회장: 구창모), 휴먼텍, UTI 사의 투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Artis Global과 휴먼텍은 1,500세대 규모의 서민 아파트를 비쉬켅에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투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분기 기준, 대 키르기즈 한국 투자금액은 약 600만 달러로 집계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2배 이상이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특히 건설업 및 부동산업 투자가 전년대비 1/4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대 키르기즈 한국기업의 건설업 투자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진척되었던 주택 및 상가 사업이 연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광업부문 투자도 소폭 증가하였으며 농업부문 투자는 2010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

한국의 키르기즈 2009-2011년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농업, 임업, 어업	-	7	-	0	164	-	0	164	-
광업	8	28	5	2,781	3,818	543	1,196	2,235	1,010
제조업	0	2	0	0	1,000	0	119	221	20
건설업	1	0	2	7,000	15,000	54	3,963	7,710	941
도매 및 소매업	1	0	-	1,500	0	-	1,100	300	-
운수업	-	-	-	0	0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2	-	15	6,001	-	1,350	1,418	-
전문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0	1	-	0	1,645	-	0	35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2	1	60	400	50	0	8	0
숙박 및 음식점업	0	-	-	0	0	0	515	-	-
총계	15	44	13	11,505	28,328	2,458	8,534	12,220	2,9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 키르기즈 한국 투자현황

연도	신고건수	투자금액(천달러)
1997	2	145
1998	2	5,800
1999	3	2,650
2000	1	350
2001	1	180
2002	1	40
2004	0	0
2005	2	355
2006	6	732
2007	28	12,824
2008	50	33,179
2009	15	8,534
2010	44	12,220
2011	13	2,872
총 계	162	79,69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키르기즈 교민 사업자 현황

번호	성명	전화번호	업종 및 직책
1	안동구	996 543 833388	조이랜드 대표
2	정현석	996 543 970815	한길테크 대표
3	오상택	996 543 913020	아세아 유니온건설
4	박중관	996 543 911707	BNK 볼링장 대표
5	이재탁	996 543 980987	웰탁물탱크 사장
6	송기웅	996 772 111660	우진트렌스 대표
7	김영규	996 543 009622	트레이드 코리아 대표
8	김문섭	996 543 923547	Blue chip 대표
9	이웅식	996 543 011287	메가젠의료기기 사장
10	정만식	996 543 915564	창 텔레콤 대표
11	김종근	996 543 910822	24시 대표
12	박광진	996 772 510849	두미실업 대표
13	이희만	996 543 918881	파크 주택 대표
14	오수봉	996 543 808032/626040	룩스 대표
15	방기남	996 312 650808/772 936884	대주알라투 사장
16	황준호	996 772 321233	동화/지사장
17	심현호	996 772 357244	원단도매업체 대표

번호	성명	전화번호	업종 및 직책
18	이현호	996 543 915488	마당쇠 정비/대표
19	지봉철	996 696952/996 543 912618	대우가스보일러 대표
20	최광영	996 775 588500	KICB 회장
21	김도련	996 543 919227	원단도매업 대표
22	이수홍	996 543 922539	벤엘식당 대표
23	이인숙	996 543 891780	에어 키르키즈
24	전부근	996 312 910815	금화무역 사장
25	전상중	996 543 971069/312 312001	KYRCO 대표
26	정진석	996 543 889647	청기와 식당 대표
27	전진호	996 543 627689/680312	시나브로/대표
28	김용성	996 543 667137/996 502 135574	셀라건강원
29	안흥기	996 543 006119	천산중장비
30	김동성	996 502 466321	목화가공업
31	민병철	996 543 912233	골든스타 대표
32	최주호	996 777 716328	최가네민박집 /대표
33	이기노	996 610435/996 543 911126	테란인터내셔널/대표
34	구창모	996 543 977744	아티즈 글로벌
35	한수연	996 772 106123	원단도매업체
36	홍영진	996 772 562242	생약수출업체
37	양희열	996 543 910334	자동차판매업
38	박희석	996 312 540149	P&P 인베스트
39	김민기	996 543 271427/996 772 388280	웰빙건강원 대표
40	강석조	996 543 919437	타이어판매 대표
41	정동익	996 543 100071	대원중장비
42	나동섭	996 555 834405	아멕스 해운
43	김병현	996 555 619031/596551	E.P.I
44	이원형	996 543 918182	돌나라
45	장재선	996 773 796448	시크스포츠
46	류신호	996 543 153772	한농마을
47	김종률	996 312 910815	영진 GLS/물류화물
48	오남석	996 543 911534	암부헬라
49	김선만	996 555 032284	케이티네트
50	박용집	996 543 837733	마리나/병원관련
51	윤우진	996 543 910123	화인
52	이영기	996 543 094112	케엔비모터스/자동차수리
53	강태규	996 543 852211	미스 꾸리짜
54	장현순	996 777 497113	EUVO

번호	성명	전화번호	업종 및 직책
55	김광태	996 543 148521	씨엔엔
56	강필희	996 777 445427	영도벨벳
57	강석조	996 543 919437	케게아
58	오창근	996 543 039309	UB 컴네트
59	박광진	996 543 924577	원단도소매업
60	이건주	996 543 234479	이건주한의원
61	이용희	996 543 910365	광물
62	장금주	996 543 959787	포테이토 벨리
63	장의영	996 555 054633	코레이도
64	김건수	996 773 798846	서울시트카바
65	김부길	996 543 974059	벽돌공장
66	박성찬	996 543 918883	골든키엔 company

자료: 주 키르키즈 한국대사관

10. 시장 특성

가. 대 키르기즈스탄 진출 애로사항

- 대부분의 수입상이 영세하며 전문화,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움.
- 통관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통관규모가 매우 크며 터키, UAE 등의 개별 수입상(보따리 수입상)의 활동이 성행
- 키르기즈 시장은 인구 500만명의 협소한 시장이고 내륙 국가로서 높은 물류 비용이 발생
- 대규모 지주회사가 국가경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비즈니스 구역의 음성적 방법 (마피아 거래, 정치로비)이 성행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나. 시장특성

- 인접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저가 상품과 저렴한 운송비를 내세워 키르기즈 소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 소비에트 독립 후, 제조업의 붕괴로 농산물과 식품 외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키르기즈 정부는 전력과 관광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최근 3개 정당이 연합한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정치적 혼란과 무정부적인 혼돈상황은 여러가지로 경제적 위험부담을 높이고 있는 상황임.
- 수입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협소하여 소량 다품종 주문과, LC 보다는 TT 결제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

다. 진출 전략

-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한국 상품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UAE 두바이를 경유한 불법 수입이 커, 향후 통관제도가 개선된다면 소비재 직접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 다른 CIS국가들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여 인력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진출 전략이 필요함.
-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소비시장으로 보다는 카자흐스탄 등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필요
- 브로커 등을 통한 정부 실력자라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재산성을 꼼꼼히 따져야 함
- 유망 진출 산업: 전력, 통신, 건설, 농업, 관광
- 유망 진출 상품: 의료, 식료품, 플라스틱, 자동차 및 부품

11.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 및 사이트를 통한 바이어발굴

1) 키르기즈스탄 상공회의소

주소	107, Kiyevskaya Str., Bishkek, Kyrgyzstan (720001)
Tel	+996 312 613872
Fax	+996 312 613875
E-mail	info@cci.kg
Web	www.cci.kg
담당자	Mr. Sharkeev Marat

2) Web-sites

- www.ai.kg
- www.poisk.on.kg
- www.gateway.kg
- www.online.kg
- www.google.kg

나. KOTRA를 통한 바이어 발굴

1)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이란 해외 KBC가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사화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 참가 목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참가목적에 따라(1개 항목 선택)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지원한다.

2) 무역사절단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 KBC가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증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tra.or.kr>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3) 해외시장 조사대행

조사대행은 업체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아, 전 세계 KOTRA 해외 KBC를 통해 바이어정보 기초조사, 해외현장단순조사, 해외시장 맞춤형 조사를 해주는 유료정보 서비스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tra.or.kr>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12.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Leto 2012 ○ 2012.08.21-08.30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2-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ярмарка одежды "лето-2012"
	☐ 'Zdrastvui, shkola! ' 2012 ○ 2012.08.24-08.28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ярмарка "Здравствуй, школа-2012"
	☐ AgroProdExpo 2012 ○ 2012.09.12-09.15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8-я Кыргыз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АгроПродЭкспо-2012"
	☐ Industria Mody 2012 ○ 2012.10.04-10.08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1-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индустрия моды"
	☐ Vse Dlya Doma 2012 ○ 2012.10.24-10.27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Все для дома"
	☐ Bishkek 2012 ○ 2012.10.24-10.28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20-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Бишкек-2012"
	☐ Osyn 2012 ○ 2012.11.15-11.19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2-я республиканская ярмарка "осень-2012"
	☐ Novgodniy padarok 2012 ○ 2012.12.19-12.23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4-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новогодний подарок 2012"
	☐ 2013 BishkekBuild ○ 2013.04.17-04.19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
	☐ 2013 Power Kyrgyzstan ○ 2013.04.17-04.19 ○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